

# 제대로된 포장의 뱀갯을 낸다

제과점의 쇼케이스 앞에서 ‘어떤 케이크를 살 것인가?’ 행복한 고민을 하다가 제품을 선택하고, 계산을 한 후 조심하며 집으로 가지고 간다. ‘자 이제 먹어볼까? 잔뜩 기대에 부풀어 포장을 열었을 때 포장을 열기 힘들다든지, 상자에서 케이크를 꺼내기 어렵다면 어떤 기분이 들까.

또한 무리해 가며 상자에서 꺼내다 큰 마음 먹고 산 케이크의 모양이 망가지거나 크림이 손과 상자 여기저기 묻는다면 잔뜩 부풀었던 기대는 눈 녹듯이 사라질 것이다. 이것은 그 제품을 판매하는 제과점 측의 크나큰 실수이다.

## 고객을 위한 포장의 최고의 포장

음식을 먹을 때는 다섯가지 감각, 즉 5감이 동원된다. 그 중 시각적으로 느끼는 맛은 무시할 수 없는 부분. 처음 구매했을 때와 모양이 달라진 케이크, 특히 장식물이 움직이고 케이스 여기저기에 묻은 크림을 보았을 때 기분이 상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위의 예에서 알 수 있듯이 제과점 포장에서는 고객의 만족도를 생각했을 때 케이스에서 꺼내기 쉬워야 하는 점이 첫 번째로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고객의 입장에서 실제로 먹기 직전이 최종적으로 상품의 가치를 결정하는 순간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고객의 입에 들어가지 직전까지가 상품을 개발할 때 생각해야 할 범위다.

케이크 상자는 양과자전문점에서는 가장 사용빈도가 높은 포장이다. 그러나 단순히 케이스는 케이크를 담아 옮기는 도구라고만 생각하기 쉬워 실용성보다는 디자인과 홍보 효과를 크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 또한 선물용 포장의 경우에는 포장상자에 의해 제품의 좋고 나쁨을 평가받게 되는 경우가 허다하므로 기능성과 실용성의 조화에 신경을 써야한다. 우선 포장의 기능을 몇가지로 나누어 보면 다음과 같다.

## 포장의 기능과 과대포장

1. 상품의 보호
2. 이미지 효과
3. 가치를 높임
4. 세트로 만들
5. 편리한 휴대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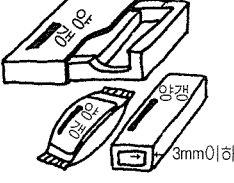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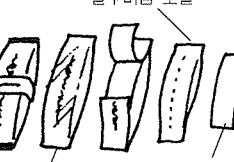
포장의 기능은 위와 같이 5가지로 나눌 수 있다. 그러나 포

장의 기능 중 가장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상품의 보호에 있어서도 주의해야 될 점이 있다. 과대포장이 그것인데 현재 특별히 어떤 포장을 과대포장이라고 하는지 확실히 규정되어 있는 것은 없으나 일본의 경우에는 전국 관광토산품공정취인 협의회에서 용기체적의 2/3이상을 내용물로 채워야한다고 정하고 있다.

좀더 커다란 상품으로 보이기 위해 제품보다 포장을 크게 만든다든지 제품의 밑부분에 완충제 등을 과다하게 넣는 것은 제품보호에 앞서 과대포장이라 말할 수 있다.

최근 지구온난화 현상 등 환경문제가 피부에 와닿고 있어 포장문제에 있어서도 각 제과점의 양심적인 참여가 요구되고 있다. **이**

〈표2〉 과대포장의 유형 (자료: 일본 양과자점경영)

 <p>한눈에 용량이 파악이 어렵도록 제품 밑부분을 높이는 경우.</p>	 <p>겉으로 보아서는 내용물의 크기를 알수 없을 정도로 상자의 크기를 크게 제작한 경우.</p>
 <p>비닐을 통해 보이는 부분만 제품을 진열하여 마치 전체가 꽉 차있는 듯한 느낌을 주는 경우.</p>	 <p>품질보호의 목적으로 각각의 제품과 제품사이에 완충제를 과다하게 넣어 크기를 부풀리는 경우.</p>
 <p>포장을 덮어쓰워 내용물을 크게 보이게 하는 경우.</p>	 <p>여러겹으로 포장하여 실제보다 제품을 크게 보이게 하는 경우.</p>